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 명 속
(상지대학교)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용어: 다문화가족,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본 연구는 2009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투고일: 2010. 8. 25 ■ 수정일: 2010. 10. 20 ■ 게재확정일: 2010. 10. 20

I. 서론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중에서 농어업 종사자가 35.9%(통계청, 20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지원체계의 한계를 예측하게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양옥경, 2007; 최현미 외, 2008),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 가족 갈등, 자녀양육, 사회적 차별 및 소외, 빈곤 등의 문제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한 자살, 가정폭력, 가정해체, 사회적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UN의 인종차별위원회로부터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 및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김은미 외, 2009). 이에 정부에서도 국가적 과제로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의 기본원칙을 표방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들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영역은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자녀들이다. 2008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는 58,007명으로 이 수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2008). 다문화가족의 부부들은 서로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혼인 반면에, 이들 가정의 자녀들은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심각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범수 외, 2007; 전경수 외, 2009).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사회적 소외 및 차별, 부모와의 문화적 이질성에 따른 갈등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발달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김병순, 2008; 우현경 외, 2009; 임안나, 2008).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경우 학업부진, 학교부적응, 집단따돌림 등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박은애, 2006; 설동훈 외, 2003; 신효선, 2008; 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이러한 아동기의 문제상황은 이들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의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다음세대에도 대물림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전숙자

외, 2009).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기의 발달특성상 가정 환경 및 가족관계는 아동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강순옥, 2003; 김진숙, 2003; 전영실, 2003), 이러한 건강한 가족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뿐 만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수경 · 이형실, 2007; 정익중 외, 2006). 아동기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부모와의 언어적, 정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심리사회적 안정은 아동의 성장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행모 외, 2002; 윤지은 & 최미경, 2004).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경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이질감으로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제한은 아동의 언어발달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 및 또래관계 등 학교생활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우현경 외, 2009; 정윤정, 2007).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 성인기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의 예방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이에 대부분의 연구는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상당수가 저연령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주요 변인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방안 모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의 경우 가족환경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일반적인 가정보다 더 많은 물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양육능력의 부족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요인(전영실, 2003; 한인영 외, 2006), 가족관계 요인, 즉 가족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관계, 부부간 갈등(강순옥, 2003; 김진숙, 2003; 전영실, 2003; Dubowitz, Pitts, & Black, 2004) 및 지역 사회 요인(이현기, 2005; DePanfilis & Dubowitz, 2005)등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경우, 가족간의 빈약한 상호작용, 가족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원의 질병 및 실직과 같은 스트레스요인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고립 등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한인영 외, 2007).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업, 또래 관계, 문제행동, 진로 등 장·단기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류승희와 안연경의 연구(2005) 및 박희숙과 이승은의 연구(2007)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치원 생활의 적응력 및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수경과 이형실의 연구(2007)에 의하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우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 중독 및 비행 등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정익중 외, 2006; 한미영·이형실,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 및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지은과 최미경(2004)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박행모 외의 연구(2002)에서도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는 부모와의 애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가족 및 가족관계의 건강성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권대희 · 오윤자, 2004; 조아라 · 현운강, 2008). 즉, 아동이 인식한 가족관계 요인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 및 또래관계,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해경과 김선숙(2009)은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청소년들의 우울과 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첫 가출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첫 가출시기는 다시 가출 상습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유진과 문재우(2005)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족관련 요인의 효과와 관련하여, 청소년 학교적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족배경요인보다 가족관계요인의 효과가 더욱 컸으며, 이 중에서도 부모관심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족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요인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최근 한국사회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사이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 및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발달적 과제인데,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동시에 두 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혼성정체성(mixed identity)”을 경험하게 된다(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2009). 이러한 정체성의 혼

란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경우 가족간의 갈등, 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학업 및 또래관계 등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 중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현욱과 황보명(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은 전반적으로 4-5세 정도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들의 한국어능력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자음정확도,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은 아동의 언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소영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취학 전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일반 한국아동 대상 표준화 검사에서 언어발달지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의 언어능력과 가정내 관련변인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연령 및 거주년수가 길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숙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현경 외(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언어발달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정윤정(200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언어이해 수준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언어발달 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학교 및 또래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기덕과 박민서의 연구(2009)에서는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의 언어발달은 어머니의 한국어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선정·강진숙, 2009). 다문화가족에서 이러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신혜정(2007)은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으며, 백종진(2009)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들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언어 및 학습발달 뿐만이 아니라, 가족간의 의사소통 강화 및 가족관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긍정적 가족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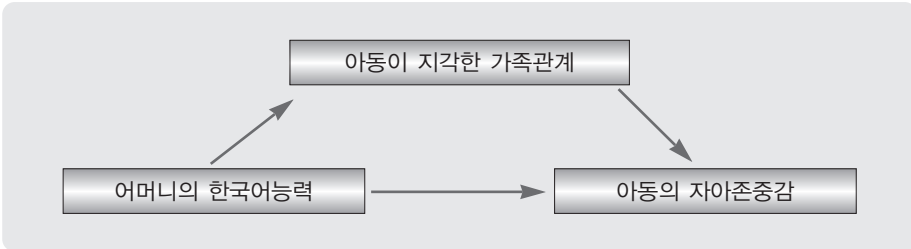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목적에 나타내는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취학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비확률표집 중 유의표집의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어머니가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로 제한되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강원도 5곳, 경기도 2곳)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아동 127명이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기재가 부실하고 누락되어 분석자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한 121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의 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을 방문한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함께 병행하였다. 면접조사의 경우, 대상아동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동의 연령이 낮아 설문문항의 이해력이 낮은 경우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면접조사원 2명이 함께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편조사의 경우 실무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실무자가 연구자에게 우편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성별, 나이, 취학 상태, 성적, 임원경험, 부모의 국적 및 학력, 건강상태, 주거지역, 가족구성원)을 묻는

문항, 다문화가족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 가족관계를 묻는 문항,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

다문화가족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79)의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3, 5, 8, 9, 10번 문항은 부정적으로 진술된 역문항들로, 역으로 채점한 뒤, 개별적인 4점 문항의 합계로 채점하여 처리하였다. 본 척도는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5의 신뢰계수를 보였다.

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정도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들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매우 잘함”에서 “거의 못함”까지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된 점수는 분석결과의 용이한 해석을 위하여 역점수 처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가족관계척도(Inventory of Family Relation)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관계상의 문제들을 측정하는 가족관계 척도(Hudson, 1997)는 총 25개의 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가족관계척도는 부정적 가족관계를 질문하는 3, 6, 7, 9, 10, 11, 12, 13, 16, 19, 22, 24, 25번 문항을 역점수 처리하였으므로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라.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연구문제의 검증에 위해 사용된 주요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측정에 사용된 척

도의 신뢰도의 확인을 위해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를 알아보았다. 둘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와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3의 변수인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라는 매개요인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역할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 아동의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및 학교(학급)내에서의 직책 여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아동이 59명(48.8%), 여자아동이 62명(51.2%)으로 응답자의 고른 성비를 나타내었다. 응답아동의 연령은 만7세-만9세 아동이 58명(47.9%), 만10세-만12세 아동이 57명(47.1%), 만 13세-만15세 아동은 6명(5.0%)으로 나타나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은 아직까지는 만 12세 이전의 연령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한 역사가 오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아직 다문화가족아동의 연령이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이 분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8명(58.1%)이 자신의 성적을 '보통' 수준의 중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36명(30.8%), 하위권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3명(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아동의 학교적응을 연구한 정윤정(2007)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60% 이상이 자신의 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선행연구의 수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나 학급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학교직책문항은 학교나 학급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아동이 18명(15.5%), 임원을 맡고 있지 않다는 아동이 98명(84.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윤경과 이소연(2009)의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의 ‘임원경험 있음’ 19.9%, ‘임원경험 없음’ 70.1%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표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 분		Frequency(명)	Percent(%)	
아동관련 특성	성별	남	59	48.8
		여	62	51.2
	연령	만7-9세	58	47.9
		만10세-12세	57	47.1
		만13세-15세	6	5.0
	학업성적	상위권	36	30.8
		중위권	68	58.1
		하위권	13	11.1
	학급임원	유(학급임원)	18	15.5
		무(학급임원이 아님)	98	84.5

나.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응답한 아동의 부모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85명(94.4%), 어머니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3명(3.0%)¹⁾인데, 이는 2009년 4월 현재 국제결혼이민자 중 여성이 88.4%를 차지한다는 통계와 같은 맥락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주의 여성화와 외국인 아내를 맞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²⁾ 어머니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일본이 54명(53.5%)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8명(17.8%), 중국 15명(14.9%), 베트

1)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여성임.

2) 행정안전부(2008), 국제결혼이민자현황.

표 2. 부모의 일반적 특성

구 분		Frequency(명)	Percent(%)	
부모관련 특성	아버지의 국적	대한민국	85	94.4
		일본	1	1.1
		파키스탄	2	2.2
		필리핀	1	1.1
		몽골	1	1.1
	어머니의 국적	일본	54	53.5
		중국	15	14.9
		필리핀	18	17.8
		대한민국	3	3.0
		베트남	4	4.0
		태국	3	3.0
		파키스탄	2	2.0
		라오스	1	1.0
		몽골	1	1.0
	아버지의 연령	30-39세	16	16.3
		40-49세	67	69.4
		50세 이상	15	15.3
	어머니의 연령	20-29세	5	4.7
		30-39세	45	42.1
		40-49세	54	50.5
		50세 이상	3	2.8
	아버지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6	7.4
		중학교 졸업	14	17.2
		고등학교 졸업	43	53.1
		전문대 졸업	3	3.7
		대학교 졸업	12	14.8
		대학원 졸업이상	1	1.2
		기타	2	2.5
어머니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3	3.5	
	중학교 졸업	3	3.5	
	고등학교 졸업	43	50.0	
	전문대 졸업	19	22.1	
	대학교 졸업	14	16.3	
	대학원 졸업이상	3	3.5	
	기타	1	1.2	

남 4명(4.0%), 태국 3명(3.0%), 파키스탄 2명(2.0%), 라오스와 몽골 각각 1명(1.0%)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 16명(16.3%), 40대 67명(69.4%), 50세 이상 15명(15.3%)의 분포를 보였고,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5명(4.7%), 30대 45명(42.1%), 40대가 54명(50.5%), 50세 이상이 3명(2.8%)으로 아버지의 연령보다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초졸 6명(7.4%), 중졸 14명(17.2%), 고졸 43명(53.1%), 전문대졸 3명(3.7%), 대졸 12명(14.8%), 대학원 졸업이상 1명(1.2%), 기타 2명(2.5%)의 분포를 보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초졸과 중졸이 각각 3명(3.5%), 고졸이 43명(50.0%), 전문대졸 19명(22.1%), 대졸 14명(16.3%), 기타 1명(1.2%)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도 3명(3.5%)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학력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점 척도이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점수 처리하였으므로,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은 2.83으로 다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2.7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의 평균이 각각 2.74와 2.6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평균값들을 나타내었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평균값이 각각 2.59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묻는 질문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의 평균이 2.6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문항의 평균값이 2.06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한 아동이 다소 많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인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들은 각각 1.81, 1.74, 1.57로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우세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3.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 항 내 용		Mean	SD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67	.978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74	.904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74	.921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2.59	.983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06	.965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59	.892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69	1.022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66	.900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57	.878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1	1.024
평 균(Mean)		2.83	Missing
표준편차(SD)		0.473	N
			12
			110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관계

Hudson(1997)의 가족관계척도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관계를 측정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족관계 척도는 4점 척도로 부정적 가족관계를 질문하는 문항을 역점수 처리하였으므로,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관계 전체 평균값은 3.19로 가족관계에 있어 큰 문제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묻는 문항들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우리 가족

과 잘 지낸다'라는 문항이 각각 3.43, 3.44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지낸다'(3.38),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3.34), '우리 가족은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진정한 근원이다'(3.30),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3.27), '우리 가족은 나에게 커다란 즐

표 4.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관계

문 항 내 용		Mean	SD
1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	3.27	.806
2	우리 가족은 훌륭한 것 같다.	3.16	.776
3	우리 가족은 내 신경을 건드린다.	2.29	.989
4	나는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3.43	.796
5	나는 전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다.	3.20	.904
6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1.46	.778
7	나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1.47	.870
8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	3.44	.666
9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	2.27	.953
10	우리 가족에게는 친밀감이 없다.	1.90	1.053
11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	1.50	.841
12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1.71	.898
13	우리 가족은 서로 너무 미워한다.	1.45	.750
14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3.20	.833
15	우리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2.81	.906
16	우리 가족에게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2.05	.956
17	우리 가족에게는 온갖 사랑이 넘친다.	3.11	.928
18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지낸다.	3.38	.717
19	우리 가족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유쾌하지 못하다.	1.95	.931
20	우리 가족은 나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3.26	.836
21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3.34	.763
22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가족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다.	2.52	1.123
23	우리 가족은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진정한 근원이다.	3.30	.863
24	나는 우리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낀다.	1.91	1.050
25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1.64	.961
평균(Mean)	3.19	Missing	4
표준편차(SD)	0.430	N	117

거움을 가져다준다'(3.26), '나는 전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다'(3.20),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3.20), '우리 가족은 훌륭한 것 같다'(3.16)의 평균값 순서를 보였다. 긍정적인 질문 중, '우리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2.8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묻는 문항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가족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의 평균값이 2.52로 다소 많은 아동들이 '그렇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2.27), '우리 가족에게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2.05), '우리 가족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유쾌하지 못하다'(1.95), '나는 우리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낀다'(1.91), '우리 가족에게는 친밀감이 없다'(1.90),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1.71),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1.64),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1.50),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1.46), '우리 가족은 서로 너무 미워한다'(1.45), '나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1.47)의 평균값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인지하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보통' 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잘함' 이라고 인지한 아동은 24.0%로

표 5.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문 항 내 용		Frequency(명)	Percent(%)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정도	매우 잘함	29	24.0
	보통	69	57.0
	약간 가능함	10	8.3
	거의 가능하지 않음(거의 못함)	4	3.3
	무응답	9	7.4
	합계	121	100.0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약간 가능함’, ‘거의 가능하지 않음’의 응답은 각각 8.3%, 3.3%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는 24%에 불과하며, 이러한 부족한 언어능력은 가족간의 의사소통이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211, $p < .05$)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233, $p < .05$)는 각각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또한 정적인 상관관계(.464, $p < .001$)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였다.

표 6.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아동의 자아존중감	.211*	-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233*	.464***	-

* $p < .05$, *** $p < .001$

5.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역할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의 매개효과검증 단계에 맞추어 확인하였다. Baron & Kenny의 매개효과검증방법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4가지 전제, 즉, 1)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함, 2)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함, 3)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함, 4)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져야 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관계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의 요인분석을 위해 변수(문항)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검증인 KMO값은 0.5이상이어야 적합한 수준인데, 가족관계척도는 .75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하위변수간 상관관계는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Sphericity)는 “요인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치로 분석결과의 검정치가 969.622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이므로 영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아존중감 역시 KMO값 .691,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Sphericity)는 281.865, 유의수준 .000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의 회귀모형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상의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동하는 직접적인 회귀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 <표 7>에서 보여지듯이 독립변인에 의하여 종속변인이 유의미하게 예측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확인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회귀계수 .211는 전체효과(total effect)이다. 검증결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한 향상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2단계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으로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되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되어지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자신의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두 번째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 회귀모형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종속변수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증결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한 향상된다는 것으로 세 번째 전제조건 또한 충족되었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회귀계수(β)는 .507($p < .001$)로 나타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α)인 .233($p < .05$)에 비교해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4단계의 회귀모형에서는 독립변인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매개변인인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를 통제된 후에 종속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검증결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회귀계수 .071은 1단계의 회귀계수 .211보다 감소한 동시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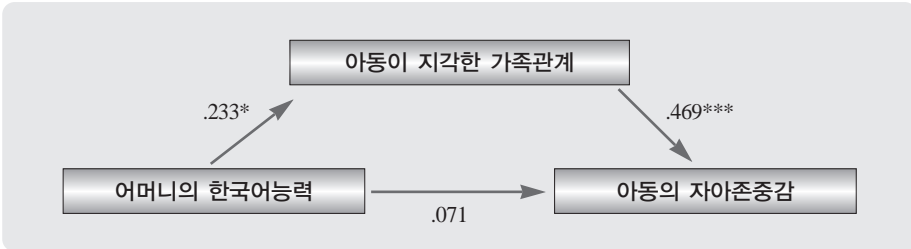
한편, 매개효과의 회귀계수를 구하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로 향하는 회귀계수 .233과 매개변인인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으로 향하는 회귀계수 .469의 곱이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매개효과 회귀계수는 $\alpha\beta = (.233) \times (.469) = 0.1092$ 이다.

표 7. Baron & Kenny의 단계별 매개효과 검증

변 수	1단계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2단계 종속변인: 가족관계		3단계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4단계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2.410***	.203	2.737***	.183	1.220***	.299	1.127***	.325
모어 한국어능력	.211*	.064	.233*	.058	-	-	.071	.060
가족관계	-	-	-	-	.507***	.093	.469***	.098

* $p < .05$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s test³⁾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Sobel's test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의 검정량이 2.37로 .05수준에서의 Critical value인 1.96을 넘어, 0.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엄격성이 다소 떨어지는 Aroian test와 Goodman test 검증방법에서도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Sobel's test 검증결과

Type of Test	Test statistic	p-value
Sobel test	2.371	0.017
Aroian test	2.339	0.019
Goodman test	2.240	0.016

3) Sobel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에 기반하여 매개효과인 $\alpha\beta$ 의 유의도를 검증하는 공식은 매개효과 회귀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누는 것이다. 표준오차값을 이용하여 구한 매개효과 검증치가 1.96보다 크다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사회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들 가정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가족의 긍정적인 관계를 높여줌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등 다문화가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구민회관, 지역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내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및 가정의 상황에 따라 방문교육 서비스 및 순회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이주여성인 어머니 개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가족전체에 대한 체계

적 서비스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나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편이나 시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가족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경우 지역사회중심의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전통의 유지, 상호원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제공하는 통합적 지지망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Moon et al., 2001; Moon & DeWeaver, 2005; Cohen et al., 2007),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부모 자조집단, 동일국가 이주여성들의 모임, 멘토 연계, 지역사회내 활용가능한 자원망 구축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지체계를 형성할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및 지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 강원지역의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전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 및 변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문제 및 개입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박명숙은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미국 Univ.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학대, 빈곤아동, 장애아동이며, 현재 아동학대, 아동인권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mspark@ sangji.ac.kr).

참고문헌

- 강순옥(2003).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강유진, 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41, pp.283-315.
- 권대희, 오윤자(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pp.115-127.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기덕, 박민서(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8(1), pp.97-121.
- 김범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서울: 양서원.
- 김병순(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서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선정, 강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 40, pp.31-55.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2009). 다문화 사회, 서울:나남.
- 김진숙(2003). 장애아동 가정의 가족유연성과 어머니의 신체적인 학대 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부천.
- 류승희, 안연경(2005). 유아의 대인불안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학, 10(3), pp.235-249.
- 박윤경, 이소연(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간 차이와 집단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pp.41-71.
- 박은애(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울산.
- 박행모, 문승태, 양정화(2002). 부모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3), pp.113-125.
- 박희숙, 이승은(200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치원 적응력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pp.337-356.

- 백종진(2009).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2003).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신효선(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양옥경(2007).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우현경 외(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pp.23-36.
- 윤지은,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pp.237-251.
-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1), pp.137-161.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기(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pp.77-108.
- 임수경, 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pp.169-183.
- 임안나(2008). 다문화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욕구분석: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조아라, 현온강(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pp.135-148.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전경수 외(2009). 혼혈에서 다문화로. 서울: 일지사.
- 전숙자, 박은아, 최윤정(2009).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전영실(2003).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2), pp.53-77.
- 정윤정(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부천.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pp.223-244.
- 최해경, 김선숙(2009).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2), pp.89-108.
- 최현미 외(2008). *다문화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최현욱, 홍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0(4), pp.315-329.
- 한미영, 이형실(2006).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4), pp.55-65.
- 한인영, 박명숙, 박형원, 유서구, 이용우(2006). 학령기 아동의 신체 학대 사정을 위한 척도개발. *한국아동복지학*, 21, pp.7-27.
- 한인영, 유서구, 박명숙, 이용우, 김주현(2007). 신체학대 발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부모 가구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pp.187-216.
- Cohen, N. Tran, T., Rhee, S.(2007). *Multicultural approaches in caring for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DePanfilis, D., Dubowitz, H.(2005). Family connections: A program for preventing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10, pp.108-123.
- Dubowitz, H., Pitts, S., Black, M.(2004). Measurement of three major subtypes of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9(4), pp.344-356.
- Hudson, W.(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WALMYR Publishing company.
- Moon, S., Wolfer, T., Robinson, M.(2001). Culturally-based Korean American family conflict and how churches can help: an exploratory survey. *Social Work and Christianity*, 28(2), pp.106-123.
- Moon, S. DeWeaver, K.(2005). An empirical test of the multicultural/multimodal/multisystems(MULTI-CMS) approach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Work Research and Evaluation*, 6(1), pp.57-74.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Park, Myungsook
(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study, 121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scores of respondents' self esteem are higher than medium sco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Also, the variable of family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ldren identified as a mediation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bles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words: Multi-cultural Families, Self-esteem, Family Relationships, Mothers' Korean Proficiency